

陰陽曆 변환

김봉규, 안영숙
한국천문연구원

초록

서양에서 율리우스력이 사용되던 1582년 이전의 우리나라 陰曆 날짜를 陽曆으로 환산할 때에 현행 西曆인 그레고리력을 연장해서 변환하는 것이 옳은지 당시 서양에서 사용되던 율리우스력에 맞추어 변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최근 사회 일각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事件의 비교를 위해 변환하는 경우인데 서양의 曆 변천을 반영해서 변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둘째 記念日 등 비교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고레고리력을 연장해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우리나라의 曆法은 삼국시대에 중국의 강요에 따라 중국의 陰曆이 도입되어 활용되다가 조선 말인 1896년부터는 西曆을 국가의 공식 曆으로 채택해[1]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현행 西曆은 그레고리력으로, 1582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그 이전부터 B.C. 46까지는 율리우스력을 채택하였다[2].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음력을 양력으로 변환할 때 율리우스력이 활용되던 때에는 율리우스력에 따른 양력으로 변환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현행 그레고리력을 연장한 양력으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陰陽曆의 변환을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目的에 따른 陰陽曆의 變換 方法

陰曆을 陽曆으로 혹은 陽曆을 陰曆으로 變換하는 目的은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事件의 比較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高麗史 天文志에 “明宗 26년 6월 기유삭(己酉朔)에 별이 흘러내리니 성중(城中)이 떠들썩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서양의 기록과 比較하려면 당시 서양은 율리우스력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날짜인 서기 1196년 6월 28일로 變換하여 比較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외에도 율리우스력이 活用되던 시기에 한국에서 일어난 社會적인 事件들을 서양의 事件과 比較하려면 당연히 율리우스력으로 變換한 날짜를 活用해야 할 것이다. 율리우스력의 날짜를 음력으로 變換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 경우가 記念日의 變換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어떤 曆을 국가의 공식 曆으로 채택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 말인 1895년 당시 총리대신 김홍집에 의해 발표된 詔勅에 의해 西曆이 채택된 바는 있다. 또한 그 詔勅에는 一世一元으로 制定한다고 했으니, 이는 陰曆의 병행을 禁한다는 뜻이다(이은성, 1978). 이후 지금까지 음력의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현실적으로 정부 수립 이후 국가의 공식적인 문서에 서력을 活用하고 있기 때문에 西曆이 국가의 공식 曆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주요 記念日은 西曆에 의해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물론 설, 秋夕, 釋迦 誕辰日 등은 예외로 陰曆에 의해 결정된다.

문제는 陰曆으로 기록된 날짜를 陽曆으로 變換해서 活用하는 記念日의 경우이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탄신일이나 이순신 장군 탄신일 등은 陰曆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당시 서양에서는 율리우스력을 채택하고 있어 율리우스력에 따른 陽曆으로 變換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면 현행 그레고리력을 연장해서 變換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變換의 目的이다. 앞서 논의한 事件과 관련된 것은 그 目的 상 당연히 율리우스력이 적용된 시기는 그에 따른 變換을 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記念日은 그 目的이 국가의 공식 曆에 따르기 위한 데 있다. 즉, 현행 曆에 맞추기 위한 것이지 당시의 서양 曆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사이에는 10일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만약 율리우

스력에 따라 변환하는 경우 春分 몇 일 후에 태어난 사람이 마치 春分 前에 태어난 것처럼 되어버린다. 만약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사이에 몇 달 정도 차이가 났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즉, 봄에 태어난 사람이 마치 현행 달력으로 보면 여름에 태어난 것 같은 혼란은 주게 한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 오히려 記念日의 변환은 현행 陽曆인 그레고리력을 연장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근본적으로 서양의 曆法 변천까지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記念日의 경우 그 대상 날짜의 계절적 상황이 현행 국가 공식 曆法の 기준과 잘 일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율리우스력을 世界曆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비록 그레고리력이 율리우스력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어온 曆法이지만 초기의 율리우스력은 로마에 국한해서 사용되었다. 즉, 특정 국가의 曆일 뿐이지 世界曆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B.C. 46년 이전의 로마력까지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B.C 222년경에는 마르티우스 15일이 歲首였고, B.C. 153년에 와서야 야누알리스 1일을 歲首로 변경하는 등(역서 2003) 여러 차례 걸친 曆의 변경을 반영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도 생긴다.

3. 요약

앞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陰陽曆 변환은 두 가지 즉, 事件에 관련된 변환과 記念日에 관련된 변환 등으로 나누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중 事件에 따른 변환은 날짜에 따른 원활한 비교를 위해 當代에 西洋에서 사용되던 曆法을 고려한 변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記念日과 관련된 변환은 현행 그레고리력을 연장해서 결정한 양력으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로 첫째, 율리우스력을 채택해서 변환하는 경우 10일의 차이에 따른 약간의 계절적 모순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고, 둘째 율리우스력은 당시 로마에 국한해서 사용된 曆에 불과하지 세계 공통 曆이 아니라는 점이며, 셋째, 율리우스력을 채택할 경우 B.C. 46년 이전에는 고대 로마력으로 변환시켜야 하는데 계절의 차이가 심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로마력의 변천과

정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까지 있다는 점 등도 있다.

참고문헌

이은성, 1978, “한국의 책력(하)”, p 175, 현대과학신서.

역서 2003, 2002, 한국천문연구원, p 163, 남산당.